

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을 누구든 보고, 어디서든 느낄 수 있도록

복잡한 궁 안을 헤매지 않게
AR 가이드가 경사로를 먼저 찾아주고,
출입이 금지된 곳도 막힘 없이 볼 수 있게
AR 공간을 눈앞에 펼쳐줍니다

그렇게 우리 앞의 작은 벽 하나씩을 넘어
이제 거리라는 큰 벽까지 함께 넘으려 합니다
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AR투어앱
[창덕ARirang at Home]

한 명 한 명을 위한
모두의 AR 창덕궁이 마침내 열렸습니다

당신의  시대를 만듭니다

